

## 교단 2025년도 목사고시 치러

총회 고시위원회 주관,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자

2025년도 목사고시가 지난 2월 3일(월) 총회 고시 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 주관으로 총회 강의실에서 치러졌다.

2025년도 목사고시는 하루 일정으로 3일 오전 9 시 30분 목사 임직 대상자들과 고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3층 강의실에서 개회예배가 시작되었다.

이날 예배는 고시위원 이경진 목사의 인도로 고시위원 김종연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석호 목사는 앱 1:1-3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심' 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시명을 감당해 나가기 원



하신다"고 전하고 목사의 직분으로 세워짐을 통해 진

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었다.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필기시험에 시작되었다.

1교시 교회사, 교회성장학을 시작으로 교회행정학, 2교시 구약학과 신약학, 조직신학, 3교시 목회윤리학, 기독교교육학, 한법, 4교시 성경고시, 5교시 설교 및 면접 등의 시험이 계속되었다.

2025년도 목사 안수 및 임직식은 이번 목사고시를 통과한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총회에 올려져 인준을 거친 후 각 지방회별로 거행된다.



## 보수 기독교 단체들 “구국의 책임, 주권자인 시민에게 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며 애국 실천할 것’ 촉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전국광역시도·시군구 기독총연합회 외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 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 17개광역시도·22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등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27일 “대한민국을 구하는 궁극적 책임은 시민에게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이며,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되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문제를 방관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 단합된 힘이야말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 할 열쇠”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또한 애국 행동을 실천하며, 나라를 구하며, 역사 속에서 정의와 자유가 늘 승리하도록 만들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을 구하는 궁극적 책임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1. 현 정치상황과 위협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거대 야당과 주적 중공에 의하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며 지켜낸 소중한 가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민주주의는 성경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진리에서 비롯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 to 보장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끄는 근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제도로서, 시민이 나라의 주권자이며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이는 우리와 후손, 전 세계 인류가 피를 흘려서라도 지켜야 할 보편적이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다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필히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시민들은 이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궁극적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이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가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다치지 않도록 구치소에서 침묵 속에 감내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과 국기를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과 용기를 기억하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민 저항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폭력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시민이 역할을 분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전쟁 수행 시의 군대 조직처럼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신체적인 위험을 받고 있다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4. 우리가 해야 할 일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케 됨을 면하라…”(히 3:7~19)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성질이 거칠고 고집이 세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성경에는 ‘강팍’이라는 말이 주로 하나님 앞에서의 변형적인 인간의 태도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한 권고이며 명령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걱정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구세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생들에게 친히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인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악속과 명령입니다. 악속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명령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케 됨을 면하라” 하였습니다.

죄의 유혹이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감정과 생 각을 앞세우려는 것을 말합니다. 위대한 인물인 모세도 죄의 유혹에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잡족들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도 물과 불만을 토로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마치 자신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민 11:13:14)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였을 때 모세는 또 한 번 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 했으면 그냥 명해야 되는데, 모세는 “폐역한 너희에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강팍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불법자들을 고소하여 필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합시다. 이들은 미국이나 서방세계 정보기관에 명단을 신고하여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4)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관리 강화

각 지역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사태를 논의하여 질책을 하거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주인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향후는 지역에서 직접 선출을 하지 않고 간접 선출을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직접 지역 이슈를 도출하고 국회의원 공약이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하면 됩니다.

### 5) 지역별 쟁크탱크 설립

각 지방 지역마다 쟁크탱크(Thinktank)를 만들어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 계몽교육을 하며 국민의 권리와 존엄성을 확보하는 협력과 지원을 원합니다. 시민들이 명실상부한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 6) 국제사회와 및 해외동포들과 긴밀한 협력과 대처

중공과 전쟁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들은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줄 해외 기관들과 언론을 개발해 주시고 돈독한 협력관계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이며,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문제를 방관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단합된 힘이야말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열쇠입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 한기총 제36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교회 보수연합기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한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23일(목)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이가페 층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후보로 나선 고경환 목사에 대해 선거 관리규정 제8조 3항에 따라 박수로 추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기립 박수로 제28대 대표회장에 추대했다.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후 소감을 발표하면서는 “이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한기총은 대한민족 목사 등 한국교회 지도자분들이 세운 기관이고, 그 뿐만은 기도다. 한기총의 그 뿐만은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과 9월에 기도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한기총은 한국 사회가 박수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좌의이나 이단들 대해서는 한기총 정관대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한기총이라는 이름에 자부심을 갖도록 세워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한 직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과거 한기총에 과오가 있었지만,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 한기총이 예

방주시를 맞은 것”이라며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많이 회복됐다. 이제 한기총은 보수연합기관으로서 명실공히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그동안 한기총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로 한국교회를 섬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 한장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꿈나무’ 찾아 나눔

권순웅 대표회장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순웅 목사)가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사랑나눔 행사’를 갖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다.

한장총은 1월 23일(목)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꿈나무(시설장 박미자)를 방문해 함께 예배드리고, 자립지원금을 전달하면서 격려했다.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부모가족들의 공동생활처인 꿈나무를 방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저출생, 생명경시 시대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자립을 꿈꾸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한난을 피하고 싶은데 한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한난이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면서 “한난 당한 한부모가족을 돌보는 기관으로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보상이 있을 줄 알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실됨이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박미자 원장은 “먼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찾아주신 한장총 대표회장님을 비롯한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꿈나무는 미훈모자가 2년 동안 거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취업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용기를 잊지 않고 야기를 양육 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현재 다섯 가정에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을 제공해 자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장총 서기 장인호 목사의 사회로 협동총무 김고현 목사의 기도와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의 설교, 박미자 시설장의 인사, 상임회장 이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드린 후 자립지원금을 전달했다.

## 1면에서 이어짐

이제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애국 행동을 실천하며, 나라를 구하며, 역사 속에서 정의와 자유가 늘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1월 27일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장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 (별지)

예전에 우리는 625 노래를 참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이는 침략을 당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으며 또한 끌려갔기 때문에 울분이 쌓였습니다.

1. 아야 잇으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

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며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며, 뱀을 굴려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2. 아야 잇으라! 어찌 우리 이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깊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3.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니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라.

(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에 겨레

우리가 얼마나 분했으면, 뱀을 굴려 땅을 치며 의분에 떤었을까요! 우리는 그때 텡크도 없고 항공기도 없고 제대로 된 소총도 없었습니다. 맨주며으로 막아냈습니

다. 미국과 유엔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

리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북한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했으면, 뱀을 굴려 땅을 치며 의분에 떤었을까요! 우리는 그때 텡크도 없고 항공기도 없고 제대로 된 소총도 없었습니다. 맨주며으로 막아냈습니

다. 미국과 유엔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

리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북한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맷도적 오랑캐는 중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국군이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의하여 후퇴하였고

그들로 인하여 지금처럼 분단국가가 된 것입니다. 북한 땅은 그들에 넘어가 2500만 동포들이 독재 체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주적입니다.

지금 중공이 남한을 재침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대와 할아버지 대의 원한을 갚을 때가 왔습니다. 6.25 노래는 후손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분들의 유언장입니다. 그들은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살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봉괴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으로 전염병으로 기후재앙으로 군부 반란으로 그리고 미국의 경제제재로 조만간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습니다. 이제 중국과 장엄한 결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땅위에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활한 고도를 모조리 찾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더욱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의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섰

## 생명의 말씀



양정섭 목사

· 한국개혁교단협의회 대표회장  
· 평안교회 당회장

## 만사가 하나님께 영광

고전 10:23~33

다. 우리는 말이나 행실로 교회에서나 형제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에게 가치는 자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 되고 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만을 존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입니다.

1. 하나님께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이 세

상 모든 피조물은 자기 위치에서 조화를 이루어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칭송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처사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변화되어 살아가며 축복된 삶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

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역시 불완전 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자 하면 죄를 항상 철저히 회개하고 양심을 바르게 갖고 진실만을 행하고 말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행복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헌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 것으로는 다 얻고 누려도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고민과 걱정이 커지고 불

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행복을 찾아 누리고자 하나 범민과 괴로움과 고통과 후회와 슬픔뿐입니다. 그것이 솔로 몬이 증거한 말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허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둑게 하시는 역사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다가 주님의 영접을 받는 행복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는데 있어서 두 가지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본문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결단코 어디서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 동정

배화여대 제13대 이후천 총장



11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배화여자대학교가 새로운 리더십 아래 도약을 준비합니다. 배화여자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 위치한 배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이후천 교수(협성대 선교학)를 제13대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사회는 총장 후보로 지원한 4인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2인을 선정했으며, 이 중 선거를 통해 이후천 교수가 새 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 주한 몽골 대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이 최근 서울 광화문 본부 집무실에서 폐лен레이 우르진룬데브 주한 몽골대사를 만나 의료선교를 중심으로 한 몽골선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정식 직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노형석 노무사, 장세근 장로(주 담당 회장)가 동석했다.

이주민·다문화·난민 차세대 섬김



경기 파주 은혜와 평강교회(담임 이종율 목사)는 경기 북부지역 이주민교회 및 다문화 선교단체들이 함께 하는 열방선교네트워크(이사장 백성훈 목사, 대표 김광현 선교사)와 지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회에서 제1회 차세대 캠프'를 개최했다. 이 캠프는 이주민·다문화·난민 차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라도록 돋보기 위해 마련됐다.

CCM가수 김조한 새 싱글 발매



신앙의 삶을 선교장 양으로 녹여낸 CCM 가수 김조한의 새 싱글 '그 이름을 부릅니다'가 지난 1월 31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됐다. '시편 150 프로젝트'의 열번째 곡이기도 하다. 신곡 '그 이름을 부릅니다'는 시편 10편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색다른 멜로디와 가사에 녹여냈다.

##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 입틀막, 폰틀막, 여론틀막 독재임을 모르는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소위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대표적인 (우파)유튜브들을 고발했는데, 단순히 유튜브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고 그 생산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 시킨 개인과 책임자 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하였다.

또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란 선동과 관련된 기자 뉴스를 펴나르는 것으로,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의원은 내란 공범 폭동과 관련된 선전 선동에 대해서는 일절 예외를 두지 않고 절제하게 짚어가서 고발하고, 그 고발 과정을 법적으로 절제하게 따져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얼핏 들으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거대 제1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인

지, 경찰 수사관들이 나와서 범죄자를 쫓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헛길일 정도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집요하게 짚어가서 고발하겠다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으로서 카카오톡은 전 국민 5000만 명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인데, 그들의 방법과 수단으로 통제하겠다는 선포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찾아서 자신들의 권력과 힘으로 엄단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꽁꽁 심을 극대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마저 끊어버린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와 같다.

이것은 단순히, 갑자기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경북의 모 대학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소위 말하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을 찬성한 바 있다.

사실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100% 진실은 아니다. 그렇다고 세계 최하

위 수준의 기준 언론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러나 보니 수많은 개인 유튜브가 생겨났고, 국민들은 심각하게 편향되고 왜곡되어 믿을 수 없는 언론들보다, 차라리 자유스럽게 현장의 소식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함한 진보 정치권이 기존의 언론들을 정약했다면 유튜브는 우파를 상징하는 커뮤니티가 되었다. 그러나 보니 유튜브 내용들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많이 전파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제하게 유튜브, 카카오톡을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언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 척결을 위해 노력해온가를 묻고 싶다. 자신들의 진영에서 생산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합법하면서, 자신들이 볼 때, 유·불리를 따져서, 불리하다고 느낀 것은 절제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발상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허물

려는 책동으로 보인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정치적 힘과 권력으로 찌어 놓아서 성공한 경우가 있는가? 현재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중국이라고 본다. 중국은 지난 2017년 말 교회를 단속하여 선교사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였고, 2018년에는 ‘종교사무조례’를 만들어 종교를 중국화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리고 2022년에는 온라인 교회 금지령을 내렸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은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을 딱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를 박해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교회일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 인구 분포상, 커뮤니티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교회를 크게 핵박한 일이 있었다. 당시 국무총리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었던 정세균 씨는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예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많은(1만개) 교회가 폐쇄되는 사례를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의해 독재로 커뮤니티를 통한 박해를 하려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카카오톡을 탄압한다고 국민들이 당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럴게도 커뮤니티 탄압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국민 5천만 명을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에 굽히려고 하지 말고, 권력만 가지고 협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을 무시해서 성공한 정당도, 정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서 정본을 청구서로 갈음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바로 탄핵심판 청구서가 되고,

국회의 탄핵의 의결서 내용인 탄핵소추 사유가 바로 탄핵심판 대상이 된다. 결국 탄핵소추의 의결서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여 심판 대상이 서로 다르게 되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현재는 즉시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탄핵심판 사건을 수행하는 소주인 단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탄핵 사유, 특히 핵심적 사유를 자의적으로 추가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없다. 현재도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에 대하여만 판단할 수 있을 뿐 탄핵 사유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철회할 권리은 없다. 그간 ‘내란수괴’에 대한 저단과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그 핵심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질서를 놓라하는 것이다. 현

재도 자체에 국회의 재의결 없이 탄핵 사유를 변경하면 탄핵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제 현재는 실제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란죄’의 철회로 심판 대상의 동일성이 상실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각하해야 한다.

4) ‘탄핵심리’ 보다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모두 13건이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을 시작으로, 이전수 방통위원장까지 4건 모두 현재에서 기각됐고, 아직 9명은 탄핵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탄핵 입법 자체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무리한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탄핵안

## 목양시평

## “현재가 헌법 파괴 계속한다면, 국민 저항권 행사할 것”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이하 수기총)와 세이브코리아 준비위원회 등 1,200여 단체들이 지난 1월 24일(금)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각하’를 요구하며, 국민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 행사할 것”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먼저 공수처에 대해 “헌정사 유례없는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헌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제포하여 구속하고 인신을 강제로 감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거대 야당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적 자존에 상처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들의 성명서 전문.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각하’를 요구하며, 국민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 행사할 것

공수처가 헌정사에 유례없는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헌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여 구속하고 인신을 강제로 감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수처가 거대 야당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적 자존에 상처를 입혔다.

근 80년 가까이 지탱해 온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법치주의를 비웃는 반헌법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현

사건도 기한 없이 계류되어 있다.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이라는 현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 서는 거대 야당이 자처하는 국회의 눈치를 보면서 농락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는 ‘신속’ 보다는 ‘신중’을! ‘빠른(precy)’ 판결보다 ‘바른(correct)’ 판결!

현재는 곁으로는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이 끝없이 지체되는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처음부터 무엇에 쫓기는지 속도에만 치우치고 있다.

현재는 2회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앞으로는 매주 2회씩 기일을 압축해서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미리 지정된 5차의 변론기일에 다시 2월 13일까지 3회를 추가해서 한 달 사이 총 8차의 변론기일을 압축해서 일괄 지정하는 등 무리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또 현재가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해서 피청구인 측이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일정에 대비하여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묵살되었다.

현재는 앞으로 겨우 한 달 남짓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끝낼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최근 국회가 정략적으로 청구한 이진수 방송통신위원회의 탄핵 사건은 선고 할 때까지 5개월 이상이 걸렸다. 그밖에 거대 야당이 먼저 청구한 9건의 고위 공직자 탄핵

무엇보다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형식적인 청구요건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 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1월 3일 대선 조급증에 빠진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 의결 당시 가장 중요한 사유로 꼽았던 ‘내란죄’를 현재의 탄핵심판에서 갑자기 철회했다.

# “이 젊은 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이끌 주인공들 은혜충만 사명감충만… 청년봉사선교회 ‘2025 겨울수련회’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복 목사) 청년봉사선교회 겨울수련회가 1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2박 3일간 전원성전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전 15:58)는 주제로 많은 청년들이 참가하여 열렸다. 청년들은 주제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주신 거듭난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의 일에 헌신할 것을 결단했다.

수련회 첫째 날, 각 성전 청년봉사선교회 회장단 임원 임명에 이어 조명제 목사는 수련회 주제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의 일에 힘쓰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었다.

조명제 목사는 강의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누구나 적극 실천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하며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①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②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③자신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④변함없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⑤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청년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행하며 널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도록 기도해 주었다.

첫날 저녁에는 같은 직종의 청년끼리 모여 직장 또는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며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우는 ‘GNTC 워크샵’ 시간을 가진데 이어 성령충만기도회가 열려, 우리 나라와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다.

둘째 날에는 새벽기도회에 이어 네 가지 선택특강(국제 정세와 한반도 통일의 전망,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결혼과 가정, 일상을 어

떻’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의 세 가지 주제로 은혜와진리교회의 선교·봉사 부서에 대해 알아보며 그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보고, 토론을 통해 이웃 사랑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계속해서 ‘전체특강’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에 이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속에 두 번째 성령충만기도회가 열렸다.

셋째 날에는 새벽기도회에 이어 네 가지 선택특강(국제 정세와 한반도 통일의 전망,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결혼과 가정, 일상을 어

떻게 살아갈 것인가, 은진 청년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 청년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조별모임(II)에 이어진 폐회예배에서 이번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배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

리며,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힘써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순복음연무대교회에서 신년감사예배 개최

###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이미순 목사)는 지난 1월 21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연무대교회에서 신년 감사예배 및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에서 전임회장 정우기 목사는 수 1:6-9 말씀을 본문으로 강하고 담대 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어 대전지방회에 새로 가입한 최성필 목사, 천광희 목사를 전임총회장 김병복 목사가 환영 및 축하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장 이미순 목사

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장래의 꿈을!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보가 매틈마다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범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를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삽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히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생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홈페이지: www.ucts.org](http://www.ucts.org)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출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출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출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증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쪽 이내)
- ⑥ 반영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4.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5.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6.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2025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li> <li>•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li> <li>•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li> <li>•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li> </ul>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소정양식) 1부
- 반영함판 사본 1부
- 주민등록증본(2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출입자는 출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하위사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웹사이트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2030 청년층, 공정을 잃고 정치 편향된 사법부 규탄…부정선거 비판

## 부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두번째 기도회 개최, 전한길 강사 그라운드 C 연사로 나서

분열된 대한민국을 기도로 다시 회복시키는 부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이하 '세이브코리아')가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세이브코리아(대표 손현보 목사)는 2월 1일 부산역 광장에서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손현보 목사는 인사 메시지를 통해 좌파 카르텔과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손 목사는 "현재 극좌들이 사법부를 장악해 우리나라의 법률과 양심과 상식이 사라졌다. 현재를 삼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좌파 종북 사법 카르텔은 대통령과 판사를 죽이는 미약 카르텔보다 더 악독하다. 이를 놔두면 자유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이라 말하며 사법부의 부패를 지적했다.

이어 "MBC, JTBC, KBS 등 언론이 거짓과 왜곡을 일삼고 있으며 좌파 카르텔이 사법부, 선관위 언론을 장악해 본인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간파하는 사법 카르텔과 언론 카르텔을 잡아 퇴출시켜야 한다. 이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닌 자유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후 세이브코리아는 "공정한 헌법 재판소가 되기를, 2030 청년들과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모든 불법과 부정과 어둠의 카르텔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다.

구호 제창을 통해서는 민주당의 탄핵 남

발과 입법 독재를 비판했으며, 현재의 불공정 성과 좌경화된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과 솔진구 국좌 문형배는 현재에서 즉시 사퇴하라", "이미선은 선을 넘었다. 이미선은 현재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외치면서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정치 편향적인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과 김미애 의원도 연단에 올라 격려사를 전했으며, 전한길 강사와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도 참석해 메시지를 전했다.

박수영 의원은 "부산은 자유민주주의 대

한국을 지킨 천병이었다. 천병이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부산을 지켰기에 유엔군이 전주 했으며,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2의 6·25가 일어나고 있다.

부산이 자유를 지켜야만 한다"고 말했으며 "나는 애국 부산시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미애 의원은 "내가 5년간 마주한 국회와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번영이 아닌 이재명의 방탕만이 목적이었다. 그들은 기업을 살려 청년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배분해 표를 얻고,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집단"이라고 말하며 국회와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을 아웃시키고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

주주의 대한민국,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목숨 걸고 앞장서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는 현 정국을 '제



2의 한국전쟁'이라 지칭하며 "현시대는 장차 대한민국의 역사책에 기록될 시기"라고 평했다.

김성원 대표는 "과거 우리의 선조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국부 이승만은 이 나라의 위대한 주춧돌을 세웠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한 나라를 전세계에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든 산업화의 일등공신"이라고 말하며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가 안보위기, 사법위

기애 처해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비판했다.

김성원 대표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의 언론, 산업, 법, 정당까

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휴민트, 군사기밀 모두 중국에 팔아 넘기고

있다. 민주당은 중국정당"이라고 말하며 민

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원 대표는 이어 최근 2030세대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전한길 강사는 연단에 올라

우리가 국민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

린다'는 제목으로 "나는 기독교인,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독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전한길 강사는 2030세대를 향해 "너무나

고맙고 기생세대로서 미안하다. 그리고 대한

민국을 위해서 먼저 거리로 뛰쳐나오고 아스

팔트 위에서 먼저 목소리 내어줘서 고맙다"

며 마음을 전했다. 이어 "청년이 죽으면, 민족

이 죽는다고 도산 안창호가 말했다. 우리

2030년들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들 덕분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청년들을 격려하고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목

소리를 낼 것을 호소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이 연단에 올라 현 시국

에 대해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김지미 변호

사는 "선관위 비리를 지적하면 명예훼손, 부

정선거 이야기하면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

다. 이는 마치 파시즘"이라 말하며 애당의 입

법 폭주를 비판했다. 이어, "서부법원 사건으

로 구속된 국민을 일벌백계한다는 법시위의

행태는 마치 넷플릭스를 봤다고 공개처형하는

공산당과 다를 것이 없다"며 선관위와 애당

당을 비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정승윤 부산대 교수는

선관위의 부정 채용에 대해 지적했다. 정 교수는 "내가 국민권익의 부의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선관위 부정채용에 대해 조사했다. 당시, 7년 치를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380명이 채용됐으며, 164회 채용절차가 있었다. 그러나 104회에 걸쳐 부정이 있었으며 353회에 걸친 위법행위를 발견했다", "중앙 선관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코리아나 벤드가 집회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올랐다. 코리아나는 '승리를 위하여'와 '손에 손잡고'를 부르면서 "분열된 대한민국이 88을 끝내고 헌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부산 세이브코리아 집회에는 약 10만 명이 참석했으며,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석했다. 특히, 2030 청년층의 참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독교 색채가 강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청년들과 시민들도 대거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일 세이브코리아는 부산역을 비롯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천 부평역 광장, 울산 현대백화점 옆, 전주 오거리문화 광장 등 전국 11개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열렸다. 세이브코리아는 이후로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매주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8일 부산 세이브코리아에는 유동규TV 대표 유동규가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 목회단상



유봉수 목사  
예하성 정책위 부위원장

은혜를 모르고 배반한 사람의 대명사가 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여러 배반의 이유를 설명하는 중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은 30냥에 스승 예수를 팔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돈 때문에 배반자가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흔한지, 작가 조중환은 연극을 위한 작품으로 장한몽(長恨夢)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주요 대사는 이렇습니다. "순애야. 김중배의 디아이몬드반지가 그렇게 좋더니? 이 더러운 것야!" "이수일은 너를 떠난다." "수일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정이 있지요!" "더러운 것야! 대동강물이 한강물이 되어도 결코 다시 너를 찾지 않으리라!" "오, 수일씨!" 이것이 장한몽의 와침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각 정당(政黨)의 달갑지 않은 배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계 안에서도 예수님이 배반하고 뻔뻔스럽게 "예수님 외에도, 세상의 종교에도 다 구세주가 있다!"고 말하는 WCC, WEA 등의 종교다원주의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분명한 예수님이 배반자로서 '그 날에'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들이 바른 삶과 정통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세진 분에게 받은 은혜를 저

## 은혜를 저버리지 말자

사무엘하 9:7

버리지 맙시다.

사무엘하 9장에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왕자는 다윗의 원수 된 사울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버가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에게 "내가 화살을 쏘아 화살이 네 머리 위로 지나 땅에 끊히거든,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라!" 일려주어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후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왕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아들 브비보셋에게 귀한 직분을 주고 왕궁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극진한 사랑으로 제자 중에 재정(財政)을 맡기까지 했지만(마 26: 15), 결국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스승을 배반하는 극악 무도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나, 기독교계에서도 '배반의 도'를 가르치는 단체들이 있으니 곧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무리들입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교회가 있다는 교묘한 논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리'를 왜곡하는 그들이야 말로 이 시대의 가룟 유다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임실지역(任實郡, 옛 이름 '오수')에 살던 김개인(金蓋人)은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매우 예뻐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장날이 되어 밖으로 나가는데 개가 따라 나오더랍니다. 장터에서 심하게 술에 취해 돌아오던 중에 그는 그만 쓰러져 잠들어 버려

두고 하산하려 하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마침 산불이 일어나니 그는 자다가 봉변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 주인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그 개가 근처 물이 있는 눈에 가서 삼단 같은 텔에 물을 묻혀 와서는 주인에게 가까이 오는 불을 막아 주인을 살리고, 자신은 기진맥진하여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지방에서 이 이야기를 기려 '오수개(犬)비석'을 세웠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은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맙시다.

모세의 십계명 중 출애굽기 20:12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그 개가 근처 물이 있는 눈에 가서 삼단 같은 텔에 물을 묻혀 와서는 주인에게 가까이 오는 불을 막아 주인을 살리고, 자신은 기진맥진하여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런 어머니를 산 속의 짐승의 밭이 되도록 버려둘 수 없다고 단단히 결심하고 다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사연이 여기저기 전해지면서 고려장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현대판 고려장'이 된 벌이 사업으로 각광받으며 벌이가 시내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행편입니다. 시설 좋은 요양시설이라지만, 실은 자식과 엄주가 결탁해 부모가 죽을 때까지 김금해놓는 신종 고려장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현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큰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나 교사의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고난 교육을 시켜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 능력을 길러냈어야 했고, 학교는 교사들 중 질서와 도리를 무너트리는 전교조 교사를 축출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진정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자식들을 위해 다 쓰지 말고 노후 대책을 위해 재산을 지니고 있으면서 유람선 여행만 달릴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시고, 이제 새 희망을 불그수를 지고 고려장터로 가서 어머니를 버려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어서 나를 죽여라!" 그럴 때 옆에서 지켜보던 노인 장로님은 전도사님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요. 전도사님. 제가 죽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아직 젊으신 사서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오!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소이다!" 장로님은 그렇게 말한 뒤에 스스로 작두에 목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를 지켜보던 인민군이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실, 나도 이북에서 교회를 다녔소. 남한 교회의 신앙은 어떤가 보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인민군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 위해 침 뱉은 무리들을 뒷동산에 데리고 가서 기관총으로 단숨에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오늘은 동에서 내일은 서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었던 두 사람은 살려두고 떠났습니다. 인민군이 떠난 뒤에, 전도사와 노(老)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사진을 정성껏 닦아서 다시 그 자리에 걸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믿고 체험하고 또 감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인류사에서 영원한 배반의 상징이요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  
은혜를 모르고 악으로 갚는 자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자요,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감사하면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며, 장수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개인, 가정, 교회, 사회만이 복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맙시다!

# 한동대 유네스코 유니트원사업단, 우즈벡서 포럼

한국·미국·폴란드 3개국 교수진, 민영화·거버넌스 주제 발표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유네스코 유니트원사업단이 우즈베키스탄 다수켄트 소재 국립은행금융대학원(Banking and Finance Academy, 이하 BFA)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한동대학교, 연세대학교(한국), 오타와대학교(미국), 폴란드-일본ITC대학교(Polish-Japanese Academy of IT, 이하 PJAIT) 교수진이 참여했다.

지난 14일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Privatization and Governance'를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동대 안진원 교수는 우즈베키스탄의 환율 자유화, 무비자 입국 확대 등 개혁 성과를 분석하고 사립대학 협용 등 교육 분야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BFA 수라요 샤미로바(Surayyo Shaemirova) 교수는 이슬람 금융을 통한 그린산업 지원방안을, 오타와대 스트롬베크(Strombeck) 교수는 미국의 산업 규제완화 사례를 소개했다.

BFA 잘랄로프 마슈쿠르베(Jalalov



Mashkhurbek) 교수는 한국 금융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금융산업 민영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PJAIT 코왈릭(Kowalik) 교수는 폴란드의 민영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엘무로드 호시모프(Elmurad Hoshimov) BFA 총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공유된 각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1월 15일과 16일에는 연세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한동대 지병화 교수, 안진원 교수, 오타와대 스트롬베크 교수, PJAIT 코왈릭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다. 유일호 전 부총리는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실현 가능성 검토, 체계적 준비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미국의 규제 완화를 통

한 경쟁 촉진과 소비자 혜택, 브랜딩과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가 다뤄졌다. 또 시장경제 전환을 위한 폴란드의 충격요법, 민영화와 기업성장, 금융산업 및 마케팅 연구방법론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우즈베키스탄의 교수, 대학원생, 공무원 등 참석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강의에 참여했다.

한동대 유니트원 사업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협력대학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의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기독교 성극 '리턴' 4월 9일부터 1년간 장기 공연 돌입

기독교 성극의 새로운 흐름을 만든 연극 '리턴'이 4월 9일부터 1년간 장기 공연에 돌입한다. 지난해 대학로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인 만큼, 올해에도 그 열기를 이어갈 것이다.

연극 '리턴'은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

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전하는 작품이다. 극의 주인공인 '성용' 역을 연기한 김성한 전도사는 실제로 자신의 청년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극본을 쓰고, 연출과 제작까지 맡았다.

그만큼 연극은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며, 과거를 살아온 부모 세대와 미래를 열어갈 MZ세대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전도사는 "이 작품은 부모 세대가 MZ세대에게 전하는 소망과 사랑의 편지 같은 연극"이라며, 단순한 신앙극을 넘어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전하는 무대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성극은 대중성과 흥행성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연극 '리턴'은 지

난해 그 모 든 한계를 뛰어넘었 다. 작품성 과 감동적 인 메시지로 입소문을 타며 전 회 매진 기록을 세웠고, 인터파크 관람평 10점 만점에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 논평

# "중앙지법의 두 차례 구속 연장 불허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 불법임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해 불법 체포와 구금을 통해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되었다. 사건이 중앙지검에 이첩되면서 대통령 구속 연장이 두 차례 신청되었다가 중앙지법에서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대면 조사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써어 구속 기소하였다. 그럼으로써 윤 대통령은 최대한 6개월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별부 접행되어 구속기소된 초유의 대통령이 되었다. 애당 대표는 5개의 혐의 1심 1년 징역과 2년 집행유예로 불구속 재판이라는 애당 대표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하여 현직 대통령은 무혐의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며 외신 기자 보도를 통해서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여 국가 신용도를 추락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 탄핵시에는 전혀 체포구금이나 구속 기소된 없이 현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만 기다렸다. 그런데 혐의 입장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속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은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여 국제적으로 망신이며 국가 원수가 제공 받아야 할 국제 정보 소통에 방해를 주는 목적이 아닐 수 없다. 왜 현 집권자들이 이렇게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살롱나비는 거대 애당의 의회 폭거로 인한 국정 위기를 알려 국민을 계동하기 위해 내린 통치권자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 쓰우는 것은 통치권자에 대한 배반인 요 사법적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다음 같이 표명한다.

1. 중앙지법의 두 차례 구속 연장 기각은 공수처의 체포와 구속이 불법임을 확 인해주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심문하고 구금하였고, 중앙지검에 구속 연장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기각되었던 검찰은 4시간만에 다시 재신청하였고 재기각당하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을 공소 취소하여 즉각 석방하지 않고 직접 대면 수사없이 그동안 수사한 경찰 솔지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구속 기소하였다. 2차례 구속 연장이 불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구속 수사 여론에 따르지 않고 구속기소를 강행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며 그를 과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앙지법의 두 차례 구속 연장 불허는 대통령의 구속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이었다. 사법부는 2차례 기각을 통하여 그동안 사법 질서의 혼란을 잘 정리해 주었다.

2.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쓰운 기소 내용은 탄핵 심판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밝혀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했고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동원된 군과 경찰이 국회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을 시작으로 현재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

을 밝히고 있다. 비상계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군경을 투입한 것도 절차 유지 차원이어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군경 투입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또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시 투입된 특전사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는 정황을 새롭게 증언했다. 이것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결정적 증거로 그동안 언론들이 군 장성들의 증언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서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외전된 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자료로 간주되고 있다. 흥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직속상관인 조태웅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보고를 했다고 했으나 조 원장은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본인 윤 대통령도 "정치인 체포 명단 건번 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법부와 현재가 진실의 실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3. 검찰의 대통령 구속 기소는 공수처,

검찰, 경찰의 찌맞춘 반역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하고 불응하자 서류 위조 불법 체포를 시도했다. 체포영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중앙지법의 낙천규 판사가 기각한 영장을 서부지법의 이순형 판사가 발부) 논란을 불렀다. 조사가 목적이라면 여러 대안이 있었지만,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내고 구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커 보였다. 이념편향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서부지법은 앞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

했다. 하지만 중앙지법은 구속 연장을 두 차례 기각하였다. 구속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공수처의 하청기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단순한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대면 조사없이 2차증언을 자료로 구속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편향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는 검찰, 국수본과 서부지법, 경찰의 일부 카르텔이 내용하여 저지른 수사권 관련 출석 속도 입법과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종체적 사법 혼란으로 비난받고 있다.

4.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의회 독재를 일리는 국민을 향한 계몽령이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언되고 탄핵 심판에서 통치권을 인정하여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

지금 공수처장(오동운), 검찰총장(심우정), 경찰, 법원의 책임자들은 현직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현 정부의 관리들이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 비상계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뒷받침(헌법적 권한)한 행위는 않고 이에 불응하고 심지어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반역 행위와 같을 것이다. 비상계엄은 2시간만에 국회의 결의로 해제 결의되었고, 대통령은 국회 결의에 따라 해제하였다. 대통령은 실제로 계엄 포고문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나라이의 비상 상태를 알린 계몽령이었다"고 증언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 비상계엄은 헌법적으로 특사나 외교권 같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비상대권으로 사용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 일 수 있다. 이럴 때 현재는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으나 비상 대권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통치권을 가진 대통령이 의

# 한국교회 돌봄사각지역 섬길 수 있는 법령 개정

지역 내 영유아·노인·장애인 돌봄사각지대 예방

한국교회가 돌봄사각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화)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에 의해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공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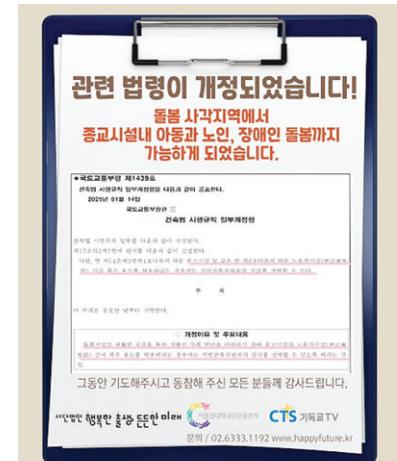
또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돌봄 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 마련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기본 요건을 갖춘 교회를 포함한 전국의 종교시설에서는 각 자체의 아동정책과 노인복지과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영유아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돌봄이 가능해졌다. 법령 개정 이전에는 종교시설이 돌봄을 통해 지역을 섬기고자 할 때 건축법 상 별도 공간을 직접 마련하거나 종교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 행복 복한 출생 든든 한 미래 흠 페 이지 (<https://www.happyfuture.kr/post/3103214>)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CTS는 지난 2006년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2010년 '출산장려운동본부', 2021년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출범하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2022년 종교계는 물론 정치, 경제,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 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 저출생 극복에 앞장 서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CTS는 아동돌봄 정책과 정당에 대한 활동을 이어왔다. CTS는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외침과 함께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정원'을 진행했다. 이에 전국 약 40만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협력과 함께 해외 기관과 협력해온 종교계는 물론 정치, 경제,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 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 저출생 극복에 앞장 서왔다. 이러한 협력으로 CTS는 아동돌봄 정책과 정당에 대한 활동을 이어왔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장인 CTS 감경철 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다음세대 부흥과 저출생 극복 운동의 열매인 이번 법령 개



정은 교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종교시설을 노유자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이 시대에 종교가 우리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에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신 모든 기관과 종교인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 행복 복한 출생 든든 한 미래 흠 페 이지 (<https://www.happyfuture.kr/post/3103214>)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CTS는 지난 2006년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2010년 '출산장려운동본부', 2021년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출범하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2022년 종교계는 물론 정치, 경제,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 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 저출생 극복에 앞장 서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CTS는 아동돌봄 정책과 정당에 대한 활동을 이어왔다. CTS는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외침과 함께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정원'을 진행했다. 이에 전국 약 40만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협력과 함께 해외 기관과 협력해온 종교계는 물론 정치, 경제,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 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 저출생 극복에 앞장 서왔다. 이러한 협력으로 CTS는 아동돌봄 정책과 정당에 대한 활동을 이어왔다.

5. 대통령은 공소 기각, 석방되어 현재 탄핵 심판에서 통치권 행사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법치주의가 작동되어야 한다. 검찰의 대통령 공소는 대면수사 없는 부실 공소로서 법원에서 독수독과론(毒樹毒果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이론으로서,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래)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7.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에 서서 초당파적으로 사법부와 현재가 공정한 판결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 시대에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체제와 사회의 정의와 공의와 법의 평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와 극좌 종북세력이 정권을 잡고 우리나라를 친중국이나 중국 종속으로, 친북한이나 종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현재가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여 판결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국론분열을 잠재울 수 없다. 현재 재판관은 법의 평등을 확보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여야 지지층 앞에서 공정한 감시자로서 사법부와 현재에서 탄핵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나오도록 전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끼어 있는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25년 2월 3일  
살롱을 꿈꾸는 나비행동

##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사업 홍보 영상

'꿈꾸는 아이들' 선한 영향력 확산시킨다

지난 24일 진행된 비전아티스트 위촉식에 봉중다과와 월드비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월드비전은 이번 위촉을 통해 봉중다과와 함께 국내 사업 '꿈꾸는 아이들' 사업을 홍보하며 크리에이터 분야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월드비전 국내사업 유튜브 채널 '꿈아이 TV' 와 '봉중다과' 채널이 협업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앞서 87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봉중다과'는 지난해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사업을 쇼츠 영상으로 소개한 바 있다. 봉중다과는 해당 영상의 한 달 수익금과 개인비용을 포함한 후원금 총 300만 원을 월드비전에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전달된 후원금은 월드비전 식생활취약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저녁 526끼 지원을 위해 사용됐다.

이 밖에 사랑의 도시락 사업 영상은 조회수 약 350만 회를 기록하며 인기급상승 영상에도 오르는 등 월드비전 사업 영향력을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또 영상 시청, 클릭, 공유만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며 기부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봉중다과 월드비전 비전아티스트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 주시고, 그 마음들이 모여 따뜻한 식사가 돼 아



이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참 뜻깊었다"고 전했다.

조명한 월드비전 회장은 "귀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봉중다과님과 비전아티스트로 함께 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봉중다과님과의 협력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비전아티스트는 다양한 활동 및 캠페인을 예술적 재능기부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 교회건축포럼 '지속 성장을 위한 교회 건축' 세미나

교회건축포럼이 "지속 성장을 위한 교회 건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오는 2월 25일(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 골드홀(B1)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한국교회 건축 방향과 공간 활용에 대해 고민하는 목회자와 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교회 건축 사례와 지속 성장을 위한 솔루션과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역할에 맞는 공간, 활용성 등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는다.

최두길 대표(야간건축사사무소)가 '지속 성장을 위한 브랜딩 교회 건축과 교회 건축의 리스크 방지 및 분쟁 해결', 최종민 대표(에스쓰리글로벌)가 '리모델링과 인테리

어는 예배를 돋는 공간 연출의 기준' 박정민 실장(크리스 시스템)이 '교회 미디어 흐름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특강에서는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그룹에서 마케팅 중역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컨설턴트인 최명화 대표(블로썸)가 '시장 변화를 이끌 2025 핵심 트렌드'라는 주제로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일시: 2025년 2월 25일(화) 10시 30분 ~ 4시 30분

신청: 2025년 2월 25일까지 문자와 전화 신작순(전화 070-4355-3308, 문자 010-3966-1463)

문자 신청서 1. 교회명 2. 등록자명(직분) 3. 참석인원

4. 전화번호 기재

참가비: 3만 원(중식 및 기념품 제공)

###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 116:12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

할꼬"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리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듭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겸손히 엎디어 무릎 끓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여 도우소서. 긍휼히 여기소



## 황보라·김보민,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운동본부 창립 34주년 홍보대사 위촉식

배우 황보라 씨와 성우 김보민 씨가 창립 34주년을 맞이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운동본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1월 21일 위촉됐다.

이들은 오랜 기간 운동본부 활동에 함께하며 생명나눔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해 왔다.

운동본부는 1991년 창립 이후 122만여 명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모집하며, 국내 최초 장기기증 운동기관으로서 장기기증 문화를 이끌어왔다.

지난 34년간 960건의 생존 시 신장이식 결연사업을 진행했으며,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예우사업,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 혈액투석 환자를 위한 라파의 집 운영, 장기부전 환자 이식 수술비 지원 등 다양한 생명나눔 운동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배우 황보라 씨는 2003년 SBS 10기 공채 텔레토로 데뷔해 귀엽고 개성 있는 이미지로 주목받았다. 이후 드라마 '배가본드', '하이에나', '일타스캔들', '기죽X밸로'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으며,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초보 엄마로서의 육아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황보라 씨는 지난 2012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해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한 후, 운동본부와 함께 디채로운 활동을 이어왔다. 2017년 각막기증 캠페인 '아이 프로미스 유' 홍보 영상 촬영에 참여하고, 장기기증의 날 기념 바자회에 애장품을 기부하며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2019년에는 본부 소식지 '선한이야' 인터뷰 및 화보 촬영을 진행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2020년 진행한 '아임도너챌린지' 캠페인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증 인증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생명나눔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2021년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위한 날인 로즈데이를 기념해 'I Rose You'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같은 해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이색 장기기증 캠페인인 나인파레이드에 동참, SNS를 통해 생명나눔 메시지를 널리 전한 바 있다.

황보라 씨는 "언젠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더 많은 사람에 장기기증 운동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홍보대사로 생명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EBS 성우극회 25기로 데뷔한 성우 김보민 씨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더 글로리' 주인공들을 성대모사하며 큰 인기를 얻었으며, 유튜브 채널 '쓰복만'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보민 씨는 2020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후 목소리를 통해 생명나눔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달해 왔다. 2021년부터 다양한 영상과 오디오북에 목소리로 장기기증의 날 기념 바자회에 애장품을 기부하며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2019년에는 본부 소식지 '선한이야' 인터뷰 및 화보 촬영을 진행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2020년 진행한 '아임도너챌린지' 캠페인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증 인증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생명나눔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 월간목회 2월호 '목회자의 말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도구'

목회자의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훈들고,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강력한 힘이다. 설교 한 편, 위로의 한마디, 때로는 침묵 조차 영혼을 치유하거나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말하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월간목회」 2025년 1월호는 지난해 특집 주제인 '목회자의 쓰기', '목회자의 일기'에 이어 '목회자의 말하기'에 관한 설교자들의 생각을 다했다. 이번 2월호는 그 연장선에서 말하기 전문가들에게 '목회자의 말하기'에 관한 조언을 듣는다.

###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 70인 천년초식품

### 천년초의 효능

#### 1)페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제특허њ)

####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풀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흉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빠고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햄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증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찧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 절대 신앙으로



신앙이란 절대성입니다. 상대성이나 형편성이라면 신념(신념) 정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한 신앙은 절대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일도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았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또는 누구는 저렇게 살아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살아간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해주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 절대신뢰, 하나님의 절대보호’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과 삶이 그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벨론 법으로 용광로에 들어가야 하는 큰 죄였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견제주실 것이다.

##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 해당되는 이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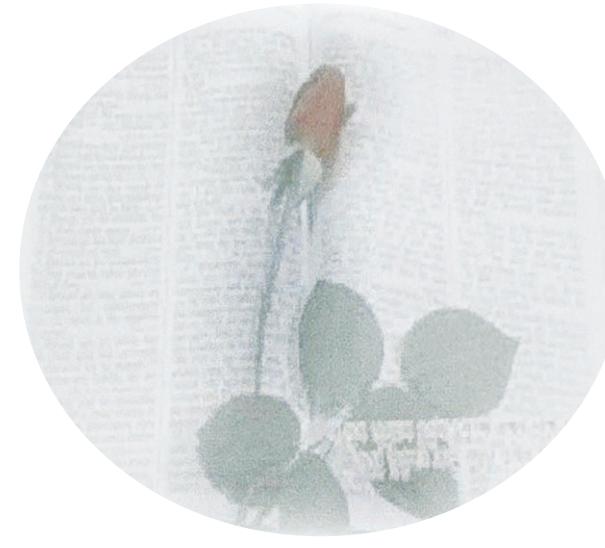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 말씀.

십자가 대속의 예수님 그 죽음 앞에 주님 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들 진실의 눈물로 회심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 말씀.

때로는 옛사람의 유혹에 빠질지라도 성령님의 책망을 무시하지 않으며 보렐의 능력 의지하여 다시 밭을 내딛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 말씀.

“만유보다 크신 손이 되어 내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하심은 영생을 소유한 거듭난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 말씀.. 이 말씀.



정말로 영생을 소유하여 거듭난 자는 결코 세상으로 가지 못한다.  
아니.. 갈 수가 없다.  
요 10:27~29 묵상 중에 주신 마음을 고백하다.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2025 전국 청년 동계 연합수련회



2024 전국 청년 동계 연합수련회 기념촬영 광경

- 일 시 : 2025년 2월 28일(금) ~ 3월 1일(토) 1박 2일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수양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 등록비 : 1인 3만원
- 대 상 : 교단 산하 청년들

## 사설

##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들

검찰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그런데도 풀어주지 않고 계속 구속하면서 기소를 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까? 어차피 법원의 명령도 듣지 않을 거면 왜 법원에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을까?

법원에서는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지만, 검찰은 풀어주지 않고 구속 기소를 한 것이다. 이런 막가파도 없다. 검찰은 제정신인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지만, 탄핵소추한 민주당은 도리어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4명이 자신들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재판관 4명은 문재인 정부나 야당 추천인사들이다. 그들은 이진숙 방송위원장이 근무를 하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탄핵소추에 찬성을 한 바겁하고도 비열하고 치사하고 양심을 스스로 속인 속물들인 재판관들이다.

세상에 아무리 속물이라도, 비양심적인 사람일지라도 근무도 하지 않아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막무가내 인간은 세상천지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찬성해주었다고 한 것이다. 막 가자는 말 밖에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그간 무슨 일을 했나?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취임 전에는 연속 탄핵 발의로 위원장 2명을 자진 사퇴하게 만들었고, 방송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 협박으로 물러나게 했다. 그러더니 이 위원장까지 취임 이를 만에 탄핵소추해 방통위 업무를 174일 동안 마비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맞지만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 눈에는 국민들의 시선도 보이지 않는 막가파식 안하무인 행

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상식과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공직자 탄핵 요건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탄핵 요건을 엄격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전에도 국회 과반수 정당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런 정략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다. 헌법·법률

을 지키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엔 이런 양식을 기대할 수 없다. 연쇄 탄핵법이라 불릴 정도로 위헌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정권 탈취를 위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밟아왔다. 세계 기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중 13건을 국회에서 처리를 했다. 이 가운데 현재는 4건을 결정했는데 전부 기각이었다. 그럼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의 탄핵은 이제 대표 방탄을 위한 정략이 대부분이었다. 탄핵소추를 남발하다 보니 개별 탄핵 사유가 뭔지 민주당 의원들조차 기억 못 할 정도였다.

그러면 무고죄가 해당이 안 될까? 형법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및 고발하는 것을 무고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이유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은 국회의원 면책특권만 아니라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다수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시 최상목 권한 대행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가 재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만 한다. 현재는 요건 미비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할까? 근무하지도 않았는데도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현재 4명의 재판관들은 이진숙 방송위원장의 탄핵이 옳다고 찬성을 했으니 이게 제정신일까?

도대체 헌법재판관이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권리 탈취에 헐안이 되어서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미친 사회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의의로 먹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절명 죽으리라 하시나라” (창 2:15-17)

##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한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시 간	2월 28일(금)	3월 1일(토)
	기상 및 조작	
07		
08		
09		
10		
11		
12		
13	검 수	
14	개회예배 찬양: 오순철 찬양교회 사역: 오세준 목사 기도: 청년 중 설교: 총회장 김영준 목사  조별끼리 (아이스크레이킹) (당일: 고대운 목사)	기상 및 조작
15	휴식	정례 및 속수, 상전 청소
16	찬양 콘서트	찬양사역자 소개: 문찬우 목사 ( 하즈밀 찬양 시역자 )
17	제복식 및 휴식 (조별로 식사 진행)	제복식 및 휴식 (조별로 식사 진행)
18	특강	찬양 및 휴식
19		제복식
20	휴식	제복식
21	제복식	경배와 찬양: 대경 별교교회 강사 소개: 문찬우 목사 강 사: 김안진 목사 기도회 연도: 문찬우 목사
22		
23		
24	취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년국

국장 오세준 목사 010-5041-3411  
차장 문찬우 목사 010-5420-2787